

매춘공화국 오명 벗어야

우리나라에서 연간 성매매로 오가는 돈(花代)이 24조원 대이며 매매춘 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여성이 최소 33만여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성매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첫 보고이며 민간단체를 통틀어서도 전국 규모의 첫 번째 실태 조사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와 읍면 단위 지역까지 모두 5,403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의 경제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4.1%인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의 4.4%에 육박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의 2001년 총매출액 22조 5천 억 원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젊은 여성 4.1% 성매매 종사

성매매 종사 여성 33만여 명은 20-30대 여성 인구의 4.1%에 해당하며 같은 연령대 취업인구의 8%를 차지하는 인구다. 젊은 여성 25명 가운데 1명이 성을 팔아 먹고사는 매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20-64세 남성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작년 한해동안 성매매를 경험했으며 이들은 한달 평균 4.5차례 성을

구매후 화대로 1회 평균 15만 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통형 매매춘'이라 불리는 전국 69곳의 사창가를 비롯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다방, 마사지 업소, 소주방, 간이주점 등 7개업종 20만 2천여 곳으로 이 가운데 5만 8천여 곳이 성매매 알선업소로 추정됐다.

사창가 종사 여성 9천여명

전통형 매매춘인 사창가의 경우 69개 지역 2,038개 윤락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9천92명이 연간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사창가가 여전히 집중적인 성매매 장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창가가 아닌 유흥주점과 같은 겸업형 성매매 업소는 전국에 총 5만7천900여개로 하루 평균 6명의 남성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으며 전체로는 하루 평균 35만8천여명이 이곳에서 성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여성의 인구의 4.1%가 성을 팔아 먹고 살고 성인 남성의 20%가 한달 평균 4.5회 성을 사는 회한한 사회가 됐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지경까지 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사창가로 일컬어지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에서 거래되는 규모보다도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등 겸업형 성매매 업소의 거래규모가 엄청난 것은 전문윤락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매매는 불법. 범죄행위

성매매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며 범죄행위인데 농림, 어업 분야 총생산과 맞먹을 정도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했다니 가히 충격적이다.

그동안 윤락을 알선한 스포츠 마사지 업주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있다.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니 일반 국민의 상당수는 성매매가 불법인줄 모르는 성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한국을 인신매매 발원지이자 종착지라고 지적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성의 도구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까지 된다고 비난한바 있다.

우리는 이같은 외국의 지적을 불쾌해 할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해야

이제는 성을 파는 여성이 잘못이나 사


한국이 매춘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이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다.

는 남성이 잘못이나를 따지기에 앞서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성도덕 불감증부터 반성하고 이의 치료에 나서야 한다.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처벌 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성을 사는 사람과 중간에 알선하는 사람들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더 화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부터 바뀌어야 하고 사회전체가 성매매 근절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이 매춘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이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윤락형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광호 · KBS 해설위원